

# 프랑스 문화사의 역사와 자취 탐방

## 생 제르망 데 프레의 명문서점, 갈리마르

최연구

《한겨레21》 파리통신원

라스파이 대로. 패션의 중심가 생 제르망 데 프레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소니아 리키엘, 버버리, 지오르조 아르마니, 크리스티앙 라크루와, 켈조와 같은 세계정상의 고급 브랜드 기성복 가게가 모두 모여 있어 지금은 패션의 중심지로만 알려져 있는 생 제르망 데 프레는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이 모여 들던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역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명성을 지키고 있다.

### 서점보다 출판사로 더 유명

전후 지식인의 거리로 통했던 생 제르망 데 프레 지역에는 금세기 초 피카소와 브라크가 만나 큐비즘을 창시했던 카페 '레 두 마구'나 사르트르, 드 보브와르가 드나들며 실존철학을 논했던 '카페 드 플로르'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로 이 생 제르망 데 프레 지역의 골목골목에는 크고 작은 명문 출판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명문 쇠이 유 출판사나 웨르쉬 미디 출판사도 모두 이곳에 밀집해 있다. 갈리마르 역시 이 대에 자리잡고 있는데, 갈리마르 출판사가 직영하는 유일한 서점이 생 제르망 데 프레의 입구에 위치한 갈리마르 서점이다. 갈리마르라는 이름은 서점보다는 출판사로 더 유명하다. 창사 후 이제까지 만오천종 이상을 펴내 금세기 프랑스 출판역사에 일획을 그었던 명문 중의 명문 출판사로 꼽힌다.

지금은 갈리마르 출판사가 유명 출판사로 서만 인식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출판사는 한때 작가들이 숨은 재능을 발휘하고 양가주망(사회참여)으로 강한 정치성을 드러내거나 여성운동의 발판으로 삼기도 했던 특별한 출판사였다. 앙드레 지드, 장 폴 사르트르, 시몬느 드 보브와르 등의 이름이 모두 갈리마르 출판사와 연결되어 있었으니, 갈리마르의 역사는 곧 프랑스 문화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갈리마르의 전신이었던 《누벨 르뷔 프랑세즈(nrf)》는 지금까지도 시리즈물로 계속되고 있는데 여전히 독보적인 권위와 상징성을 잃지 않고 있다. 새로운 문인의 등용문이자 비평지로서의 독특한 역할을 담당했던 《nrf》지는 당시에 난무했던 고전주의 문학이나 국수주의 문학에서 벗어나서 젊은 작가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거리낌없이 솔직히



1 패션의 중심가에 자리한 갈리마르 서점은 역사적으로 지식인이 모여 들던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였다. 2 인류사에 길이 남을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nrf' 시리즈. 3 빼적거리리는 나무바닥이나 거무튀튀한 석조 건물에서 고객들은 오랜 정겨움을 느낀다.

갈리마르 서점에는 프랑스 문화사의 숨결이 살아 있다. 독보적인 권위와 상징성은 정평 있는 잡지와 플레이어드 총서, 'nrf' 시리즈 등으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별히 현대화한 것도 아닌 갈리마르 서점에서 고객들은 뿌듯한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이때가 1909년으로 《nrf》는 이내 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게다가 《좁은문》의 작가로 유명한 앙드레 지드가 참여하면서 《nrf》의 품격은 더욱 높아진다.

### 열린 공간 지향

문화계에 깊숙이 관련해 있던 가스통 갈리마르는 1911년에 《nrf》에서 새로 만들 출판사의 사장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수락, 탄생한 출판사가 바로 오늘날의 갈리마르 출판사다. 초창기에는 폴 클로렐 등이 관여했고 불문학사에 길이 남을 거장, 마르셀 프루스트 역시 갈리마르 출판사를 거쳤다.

출판사의 초기부터 정형화되었던 갈리마르의 특색은 모든 장르의 문학이나 저술을 정해진 틀 없이 받아들여 최대한의 다양성을 추구해 왔다는 점이다.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확실한 가치의 폴 발레리 유평과 초현실주의 문학의 앙드레 브르통, 공산주의 성향의 서정시인 루이 아라공이나 떠오르는 신인이었던 장 콕토 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갈리마르 출판사였기에 가능했다. 그후 갈리마르를 거친 인물의 목록에는 앙드레 말로, 헤밍웨이, 카프카, 장 폴 사르트르, 시몬느 드 보브와르, 생 텍쥐페리, 알베르 카뮈 등 세계현대문학사를 이끈 대문호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1933년에 갈리마르사가 <라 비블리오테크 드 플레이어드> 총서를 사들임으로써 갈리마르는 더욱더 자신의 명성을 높여 놓았다. <플레이어드> 총서는 무게 있는 고전이나 원전만을 출판하는 시리즈인데, 일단 이 총서에서 출판되었다면 인류사에 길이 남을 고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해도 좋을 그런 비중 있는 시리즈물이다.

갈리마르 출판사는 또한 정통 잡지를 많이 펴내는 출판사로도 유명하다. 1945년 장 폴 사르트르의 주도로 창간되어 올해 53주년을 맞는 비평지 《르 땅 모데르느(현대)》, 얼마전 100호를 넘긴 좌파 최고의 권위지 《르 데바》, 지성학 학술 전문지 《리메스》 등

# 아날로그를 통해 배우는 디지털

미국과 일본의 컴퓨터 서적 전문출판사 사이트

정옥희 · 길벗 기획편집부

은 모두 갈리마르에서 나온다. 다른 출판사와는 달리 갈리마르는 출판사 자체가 정치적 색채를 띠지는 않고 정치성이 선명한 지식인 집단이 왕성한 이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출판사를 지향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한 지식인의 왕성한 참여로 출판사 갈리마르는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굴지의 출판사로 자리잡았다. 그 저력에 힘입어 갈리마르는 또한 최고의 문학상 공쿠르 수상자를 많이 배출해 낸 출판사의 하나로서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1911년부터 1975년 죽는 날까지 갈리마르 대표 자리를 지킨 가스통 갈리마르는 신인문인의 가능성에 대한 예리한 직관력, 원만한 인간관계, 출판인으로서의 직업적 감각 등으로 지금까지 유일무이한 출판인으로 남아 있다.

## 오랜 역사 문헌 친근한 공간

라스파이 거리에 있는 서점은 이러한 갈리마르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이다. 갈리마르 서점의 구성구석에는 프랑스 출판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다. 서점 바깥에는 갈리마르 출판사가 펴내고 있는 잡지들과 아직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nrf》시리즈가 전시되어 있다. 거무튀튀한 색깔의 오래된 석조건물, 삐걱거리는 나무바닥이나 지하 주머니판 전문매장으로 꼬불꼬불 내려가는 고풍스런 나무 계단에서는 웬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진다. 서점 벽에는 갈리마르를 거쳐간 세계적인 문인들의 사진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어 갈리마르의 비중이 무겁게 느껴진다. 갈리마르가 문학중심의 출판사인지라 소설이나 문예비평물 같은 문학물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 매장의 한켠에 미술 화보집이나 예술관련 서적란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도 이 서점의 특징 중 하나이다.

갈리마르 서점은 매장이 현대화되어 특별히 이용이 편리한 서점도 아니고, 취급도서가 특이한 특수 서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마르 서점의 고객들이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오랜 친근함을 그곳에서 느끼게 되는 것은 갈리마르 서점이 금세기 프랑스 문화사의 자취와 역사를 듬뿍 보듬고 있는 서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열사인 MS-Press의 사이트에서는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관련서적을, 세계 최대 컴퓨터 서적 출판사인 IDG 북월드와이드사의 홈페이지에서는 국내에도 선보인 컴퓨터 책들의 원서와 신간을 찾아볼 수 있다.**



MS-Press사이트와 IDG 북월드와이드사 홈페이지.

이러한 정보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심심치 않게 '종이책의 종말'에 대한 주장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정보화시대의 도래가 꼭 종이책의 종말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컴퓨터 서적 시장의 약진을 들 수 있다. 올 상반기 대형 서점들은 극심한 매출부진을 겪었지만 유독 컴퓨터 서적 분야만 10% 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서점에서 컴퓨터 서적 코너는 가장 목 좋은 곳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제 컴퓨터 서적 전문 출판사들의 인터넷 사이트로 찾아가보자. 먼저 찾아가볼 곳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열 출판사인 Microsoft Press(MS-Press) 사이트(<http://mypress.microsoft.com/>)다. MS-Press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각종 프로그램들의 매뉴얼을 발간하는 출판사로, 이 사이트에서는 전세계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명한 다양한 책을 만날 수 있다. 관심 있는 책의 제목을 클릭하면 책의 표지 그림과 함께 쪽수, 가격, 간단한 책 소개 등이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한다. 책 표지 그림 아래에 있는 Sample Chapter와 Table of Contents를 클릭하면 소개하고 있는 일부 내용과 목차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만 있다면 직접 책을 주문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관련 서적 출판사로 알려져 있는 IDG Book Worldwide사의 홈페이지(<http://www.idgbooks.com/>)에 방문해보자. IDG Book Worldwide사는 국내에 번역 출간되어 컴퓨터 고급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윈도우 95 바이블》과 《윈도우 95의 비밀》의 원서를 펴낸 출판사로 유명하다. 이곳에 방문하면 신간 《Windows 98 Bible》과 《Windows 98 Secret》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책 역시 조만간 국내에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컴퓨터 서적 시장이라는 게 전세계 어디서나 공통되는 부분이 많은 모양이다.

사실 국내 컴퓨터 서적은 편집과 구성 면에서 미국보다는 일본 책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지난해 컴퓨터 서적시장을 휩쓸었던 <할 수 있다> 시리즈가 일본책을 번역한 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할 수 있다> 시리즈의 원서인 <데끼루(できる)> 시리즈를 만나보자. 이 시리즈를 펴낸 출판사는 Impress Corporation(<http://www.ips.co.jp>)사다. 접속한 후 컴퓨터서적 코너를 찾아보면 국내에서 번역출간된 <할 수 있다> 시리즈의 원본을 만날 수 있다.

또 일본에는 <데끼루> 시리즈와 비슷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초도해(超圖解)> 시리즈가 있다. X-Media 출판사에서 펴낸 컴퓨터 입문서 시리즈로 구성은 <데끼루> 시리즈와 비슷하다. <http://www.x-media.co.jp>에 접속한 후 서적안내 코너를 찾아보면 된다.

국내 컴퓨터 서적 출판사들의 홈페이지 중에서는 영진출판사(<http://www.youngjin.co.kr>)와 정보문화사(<http://infobub.co.kr>)에서 마련한 홈페이지가 둘러볼 만하다. 하지만 컴퓨터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면 출판사 홈페이지보다는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사이트의 컴퓨터 서적 코너를 이용하는 편이 좀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언제인가 꽤 유명한 시인이 "냉장고나 TV의 사용설명서가 책이 아닌 것처럼 컴퓨터 책도 책이 아니다"라고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기획과 아이템으로 무장한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못했으리라. 그 안에 새로운 기획의 내용을 담는다면 냉장고나 TV 사용설명서도 책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기획과 고민의 냄새가 풍기는 책다운 컴퓨터 책이 일반화되려면 국내 컴퓨터 서적 출판사들의 반성과 분발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